

Healing X I.

어차피 해결할 문제라면 빨리 직면하는 것이 좋다.

1. 고통을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고통중에 있는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비유하시면서 그 뜻을 명확히 하셨다. 고통에 대한 성경의 자세는 소극적이지 않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다.

[누가복음 5:31-32]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32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2. 고통의 쓴 잔

[누가복음 22:42]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고통'의 문제는 쉽지 않다. 경한 고통이건, 중한 고통이건 고통은 힘들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길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감람 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44절)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고통의 쓴 잔에 대한 여러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고통의 잔은 마시기에 어려운 잔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잔이다. 즉,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뿌리와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이 고통의 쓴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방법 뿐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사람도 아닌, 흠 없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다.

3. 문제를 결국 해결 할 사람 - 간절함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존재한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있다.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풀렸던 시점이 '전쟁'이다. 전쟁은 '생존'이다. 전쟁에서 패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맞아야 한다. 그래서 목숨걸고 이겨야 하는 것이다. 적들보다 모든 것이 좋고 월등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은 전쟁속에서 발전을 이룬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말이 있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마음이란 '상한마음'을 말한다.

[시편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란, 피상적인 고통이 아니다. 진짜 아픈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이 바로 인간의 고통을 아파하시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신 것이다. 인간의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피상적 신이 아니다. 인간 안에서 인간과 함께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고아와 같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해결하려 하신 것이다.

4. 고통이 주는 능력

고통앞에 있는 인간은 '정직'하다. 가식적이지 않다. 꾸미지 않는다. 포장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가공되지 않는 원석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단순해지며 순수해진다. 그래서 고통을 극복한 사람의 특징은 '건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고통이 주는 이런 정직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열쇠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연의 '의지'를 만들어 준다.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다르다. 고통을 알기에 시작했으면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다가 안되면 쉽게 포기한다. 왜 포기하는가? '하다가 못하면 딴 것 하면된다' 라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절명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답을 찾는 일에 노력한다. 또한 고통은 고통 당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선물로 준다. 진짜 위로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왜 위로가 되는가? 공감대와 동질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5. 고통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은 '소명'으로 연결된다.

소명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물러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말한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핍박과 환난을 견딜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탁 때문이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그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을 '사명자' 라고 부르는 것이다. '소명'이 없이는 '사명자'가 될 수 없다. 사명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해결 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과 '사명' 없이는 완주할 수 없다. 즉, '고통'의 문제를 뚫고나갈 힘이 없다는 것이다.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부르심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만약 변했다면 하나이다. 타락으로 인한 변질 아니면, 제대로 '문제 의식'을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6. 신앙인에게 고통의 문제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 고통의 문제가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으셨다. 회피하고 돌아가지 않으셨다. 어려워도 부딪히셨고 직면하셨다.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해결하고 말겠다는 의지와 결단'으로 가득하시다.

신앙은 '의지'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마음을 먹고 의지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7.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의지의 사람 '다윗'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이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속에서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어느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간다. 형들에게 도착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다 (삼상17:23). 그리고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다. (24절)

다윗이 문제를 본다. 이 문제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다윗은 반응한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다윗은 이스라엘이 겪고있는 고통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아 버린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의지를 불태운다. 이런 다윗에게 형들이 참소하며 화를 낸다. 이런 형들의 반응 앞에 문제해결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더 굳건해진다.

[사무엘상 17:28-30]

28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만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29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 보지도 못합니까?"

30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 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라.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들의 참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 한다. 결국 이런 다윗의 의지는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이 다윗을 부른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말렸으나, 다윗은 양을 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결국 사울을 설득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피한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 드디어 선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골리앗)에 다다르기 전에 포기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가면 문제의 뿌리 앞에 서게된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문제 골리앗을 이긴다.

8. 문제 앞에 서야 문제를 해결한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죄의 문제를 통해 인간을 붙잡고 있던 사탄 앞에, 십자가 위에 홀로 계셨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고통의 문제 안으로 뛰어 들어가셨다. 그 분이 뛰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죄악의 사슬로 인한 죽음의 고통의 문제는 완전히 무력화 되었다. 모든 문제는 뛰어들면 무력화 된다. 그 사람이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세워 나갈 수 있다.

9. 두려워 말라.

[골로새서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윗이 싸우려고 가지고 있던 작은 돌은 골리앗을 이길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 돌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면 이길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있는 다윗의 작은 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고통을 끌어안으라. 그리고 그 안으로 뛰어들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고통의 핵심인 골리앗과 같은 어두움의 존재앞에 서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모든 원수들을 무력화 하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고난주간이다. 고통을 해결하려고 끌어 안으셨던 예수님의 승리가 더 깊이 현실화 되기를 기도한다.